

백양사 호국법회 '부촉문' 논란 확산

종정 예경실 공식 부인... 주지 시몽 스님 "직접 받았다"



시로 읽는 정보순례

국보 제63호 도파인사철조비로자나불좌상

그 사내

윤석산

도저히 입 폐지 않아

구내는 고사하고 입 안 그득 곰팡이 슬었을 듯한

그 사내와

마주하고 선다.

천 길 불길 속에서 죽고 죽어

심장까지 다 녹아 아, 아 비로자나불로 태어난 사내

(나 이곳에 앉아 있으려니

그래들이 자리에 피안에 이를 절집 한 채 지을지니)

이제 입 열어 세상 향해

"이놈들!"하고

대갈일성함 직도 하네

여전히 입 꼭 다물고만 있는

오늘도 다만 천 길 불길 속 견디고만 있는 그 사내

뭉디 붉은해

취엇취엇

오늘도 천년의 그 어깨 너머 넘기고만 있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중에서

윤석산 시인은... 서울 출생. 197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 시집 〈온달의 꿈〉 등.

백양사 호국안민기원법회에서 종정 진제 스님 명의로 발표돼 진위 논란에 휩싸인 '부촉하는 글'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시몽)가 8월 14일 불행한 호국안민기원법회. 광복 67주년을 앞두고 호국의 의미를 되새기려는 취지의 법회라고 했지만, 사실상 암도 스님의 방장 추대 법회였다. 실제, 원로의원 월서 스님의 종정 범위 대독 이후 발표된 '부촉하는 글'을 암도 스님은 예를 갖추고 받았다. '부촉하는 글'에는 암도 스님이 원로로서 백양사를 지도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주지 시몽 스님도 법회 직후 본지와외의 인터넷에서 '부촉하는 글'의 의미에 대해 "암도 스님이야 말로 백양사 원로 중 학덕을 구족하신분이다. '부촉하는 글'도 종단의 명망 높은 원로이신 암도 스님이 백양사를 총괄 지도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촉문에 대해서는 "종정 스님에게 참석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세 번 찾아갔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드렸다. 부촉문은 종정 스님을 찾아갔을 때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종정 예경실은 백양사에서 발표된 '부촉하는 글'을 공식 부인했다. 예경실은 입장문에서 "종정 스님의 명의로 발표된 '부촉하는 글'은 종정 스님이 직접

대독 월서 스님 "관계자 참회"

비대위·시민단체도 우려 표해

호법부 처벌 천명, 특별감사도

작성해 내리신 게 아니다"며 "덕담으로 한 말씀 중 일부가 성문화 시켜 주회 측이 임의로 작성해 대독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종정 예경실의 공식 입장 이후 시몽 스님 측은 역풍을 맞았다. 방장 추대 문제를 둘러싼 내부 문제를 종정 스님의 권위를 도용해 해결하려 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

되고 있어서다.

'부촉하는 글'을 대독한 월서 스님은 8월 16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그간의 정황을 밝히고 "총림의 방장을 모시는 절차가 종헌과 종법에 분명히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백양사 주지와 관계자들은 종정 스님에게 참회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대 측인 고불총림 임회 및 고불총림 백양사 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성오, 이하 백양사 비대위)도 1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부촉문 조작성에 대해 사죄를 뜻하고 "현 주지 시몽 스님 측이 개최한 호국안민법회는 종헌종법을 공공연하게 철저히 무시하고, 불법, 초법적으로 방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상임공동대표 최후)도 백양사의 '종정 부촉문 조작파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총무원 호법부(부장 정안)도 '부촉문' 논란 사태를 해종행위로 간주하고 지위에 상관없이 엄중 처벌할 것을 밝혔다. 호법부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처벌을 강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실상 종정 스님을 기방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호법부는 입장문을 통해 "부촉하는 글"을 임의로 작성하고 공개석상에서 발표해 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위를 불문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종헌과 종법에 규정된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총무원 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주동자와 동조자 모두 처벌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총무원도 16일 열린 총무원회의에서 방장 추대 문제로 내홍을 앓고 있는 백양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특별감사는 17일부터 18일 2일간 진행됐으며, 총무원 총무부, 감사국, 재무부, 호법부 등이 참여했다.

신종일 기자·양행선 전남 지사장



런던 장애인 올림픽 '진승' 기원합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8월 16일 경기도 이천 소재 대한장애인체육회 훈련원을 방문해 올림픽 출전을 위해 훈련 중인 장애인 선수들을 격려했다.

가장 먼저 훈련원의 현황보고를 들은 자승스님은 "태릉선수촌에서 훈련하는 대표단에 비해 장애인 올림픽은 국민적 관심이 못 받고 있다. 좀 더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방문했다"고 방문 의미를 밝혔다.

현황보고 후에는 관계자들의 안내로 훈련장 등을 둘러보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들을 격려했다. 신종일 기자

17명 떠난자리 '평화 인권 센터' 들어선다

위안부 할머니들 보금자리 '나눔의 집' 20주년 맞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인 '나눔의 집'이 설립 20주년을 맞았다. 경기도 광주시에 자리 잡은 나눔의 집(대표 월주)은 8월 11일 설립 2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다. 나눔의 집에서는 올해 2명을 포함해 지

난 20년간 17명의 할머니가 여한을 안고 세상을 떠났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현재 나눔의 집은 많은 사람이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국제평화인권센터를 건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소장에 따르면 나눔의 집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나눔의 집 앞 800여㎡에 건축면적 200㎡, 2층 규모의 국제평화인권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3억원으로 예상되는 건립비용은 6월에 벌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화선(향년 86세) 할머니가 기부한 6000만원을 바탕으로 각계 후원금과 법인 지원금 등을 모금해 마련할 예정이다.

2014년에 착공할 예정인 인권센터는 세미나실과 전시실, 숙소 등을 갖추고 지금보다 체계적인 인권·평화·역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정한용 징계 적법"

서울고법, 17일 원심 기각

서울고등법원이 정한영(법명 성호)에게 조계종이 내린 징계결정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정종관)는 8월 17일 판결문을 통해 "조계종이 정한영에게 내린 벌칙의 징계처분은 제적의 징계처분으로 변경됐으므로 벌칙 무효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각하한다"며 "제적의 징계는 적법한 만큼 원심의 판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BULKWANG ACADEMY

佛光 2012 가을

불광 아카데미

불광사는 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현대적 의미를 발견하기 위하여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일반 인문학과 불교를 비교하는 강좌, 불교 원전을 심층 학습하는 과정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사 불광법회 02-417-2551 www.bulkwangsa.org

불광연구원 주최 12주 한국의 고승(高僧)과 불교사상

개강일 9월 12일 개강 수강기간 총 12주(매주 수, 저녁 7시 30분) 수강료 120,000원(자료비 포함)

최근 초기불교와 티벳불교, 서양의 불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갖게 됨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반면, 정작 한국의 고승과 그들의 삶과 사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합니다. 우리 불교 속에 살아 숨 쉬는 고승들의 삶과 사상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현재적 의미를 찾아보는 과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강	9월 12일	승량(僧朗)	동아시아 불교의 초석을 다진 해동의 고승 김성철(동국대)
2강	9월 19일	원측(圓測)	유식학의 새장을 연 신라의 학승 남무해(국민대)
3강	9월 26일	원효(元曉)	해동불교의 신 새벽을 연 화쟁보살 김원명(외국어대)
4강	10월 10일	의상(義相)	일승법계도와 해동의 화엄사상 해주스님(동국대)
5강	10월 17일	도의(道義)	남종선의 전래와 구산선문의 성립 김성현(동국대)
6강	10월 24일	의천(義天)	선교를 종합한 한국 천태종의 개조 이병욱(고려대)
7강	10월 31일	지눌(知訥)	위기의 고려불교를 살린 정혜결사 이덕진(문성대)
8강	11월 14일	일연(一然)	고대의 신화와 설화를 집대성한 역사가 조병재(신라대)
9강	11월 21일	태고·나옹·백운	간화선 선풍을 드날린 여말 삼화상 황인규(동국대)
10강	11월 28일	청허(淸虛)	선교를 회통한 호국의 팔도총섭 교영삼(동국대)
11강	12월 5일	백파와 초의	1백년을 품미한 조선 최대의 선문논쟁 김방용(충남대)
12강	12월 12일	경허(鏡虛)	격동의 근대사를 밝힌 경허와 근대의 고승 변희욱(서울대)

김형효 철학 산책 8주 마음혁명, 부처님의 세상보기

개강일 9월 17일 개강 수강기간 총 8주(매주 월, 저녁 7시 30분) 수강료 80,000원(교재 별도)

『마음혁명』은 '사유의 여행자' 김형효 선생님이 세상과 철학 이야기를 담은 책 제목입니다. 그동안 서양의 헤체철학과 동양 철학을 결합한 독창적인 사유 체계를 보여준 저자가 30여 년에 걸친 사유의 여정을 정리한 책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철학에서 시작하여 불교철학으로 눈을 돌리신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